광주·전남 고용 부진 이유는 '주력산업 경기 악화'

한은, 광주·전남지역 고용 시사점 분석

청년층 감소·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 요인 복합 작용
소비패턴 변화도 자영업 악영향…"산업경쟁력 강화"

광주·전남지역 고용 부진의 원인이 주력산업 경기 악화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한 소비패턴의 변화도 자영업 고용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광주·전남지역 고용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주력산업 생산 부진, 청년층 감소, 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고용기반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했다.

광주지역의 고용현황은 취업자수가 증가했지만 구직난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수는 올해 9월 기준 78만여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하다 올해 8월 증가로 전환했지만, 신규 구직을 신규 구인으로 나눈 구인배율은 0.24로 전국(0.44)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돼 구직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과 핵심연령층의 취업자 비중이 줄어든 점,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중심의 고용 악화, 자영업자수 감소도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전남지역은 2023년 하반기부터 취업자수가 감소로 전환해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어업과 건설업 비중이 타 광역도 평균 대비 높고 제조업 비중은 낮은 취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고용안정 측면에서 일자리 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에서는 지역 고용의 부진 원인으로 주력산업의 경기 악화를 꼽았다.

광주의 경우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생산 부진이 두드러졌고, 전남에서는 석유화학·석유정제·철강 산업의 부진이 지속한 점이 영향을 끼쳤다.

온라인 구매 확대와 소비행태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자영업 수요 기반 약화, 무인화 확산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도 자영업 고용 여건을 악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지역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소득·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낮아 청년층 유출이 지속, 노동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전남은 농림어업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기반 악화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역의 고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주력산업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별 산업 구조에 맞는 고부가가치화 추진을 제시했다.

광주는 청년층 유인을 위해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모빌리티 전환 가속화, 첨단 디지털 산업 생태계 확장을 통한 고숙련·전문직 일자리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남의 경우 석유화학·정유·철강 등 중화학 기반 산업 비중이 높아 탄소저감형 친환경 제품 및 첨단산업용 고부가가치 소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의 약화된 고용 기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에 부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소비채널 전환과 소비행태 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인 만큼, 지역 자영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고용 부진은 단기 경기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구 유입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지역 산업단지 고용 현황 (개·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동업체수(A)	3564	3863	4100	4758
고용(B)	6만7937	6만9598	6만7456	6만7225
B/A	19.1	18.0	16.5	14.1

전남지역 산업단지 고용 현황 (개·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동업체수(A)	2986	3099	3311	3318
고용(B)	8만9524	9만2626	9만6710	8만6816
B/A	30.0	29.9	29.2	26.2

자료 출처=한국산업단지공단

GICON, K-콘텐츠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싱가포르 'ATF 2025'서 공동관 운영…지역 기업 참여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3일부터 5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송·영상 콘텐츠 마켓 'ATF 2025(Asia TV Forum & Market)'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가는 광주 지역 우수 콘텐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GICON은 행사장에서 'GICON 공동관'을 운영하고 'GICON 비즈니스 쇼케이스 2025'를 개최해 해외 바이어들과의 수출 상담과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관에는 총 8개 지역 기업이 참여해 애니메이션, 영화, VFX 등 다양한 장르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참가 기업은 △5브릭스(애니메이션) △어쩌다필름(영화·시리즈) △마로스튜디오(애니메이션·버추얼 캐릭터) △엠엠허브(VFX·매치무브) △핑고엔터테인먼트(애니메이션) △스튜디오버튼(애니메이션) △스튜디오팝콘(애니메이션) △울트라그린(애니메이션) 등이다.

특히 행사 4일에 열리는 'GICON 비즈니스 쇼케이스'에서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 등 글로벌 주요 미디어 기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업별 핵심 IP를 직접 소개하고, 해외 투자 유치와 공동 제작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바이어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용 GICON 팀장은 "이번 ATF 2025 참가는 광주의 우수한 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콘텐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ATF는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대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마켓으로, 전 세계 방송사·배급사·투자사가 참여해 콘텐츠 거래와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순천 본원에서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50+)' 참여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상호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남TP,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간담회

애로·건의사항 청취…지원방안 모색·상호 교류

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순천 본원에서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50+)' 참여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상호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50+)' 참여기업 5개사 대표 및 경영진과 전남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중소기업청과 협력해 지역혁신기관의 역량을 결집,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를 기획·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정책자금, 바우처, 스마트공장 등 핵심 정책수단을 3년간 패키지 형태로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에서는 2개의 프로젝트에 총 7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곽부영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은 "이차전지 등 전남의 주력 산업을 영위하는 레전드50+ 참여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을 앵커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남 지역특화 프로젝트가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는 대표적 성장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기후·에너지 글로벌 연구 켄텍, 독일 PIK 협력 강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분야의 세계적 연구기관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Potsdam Institute for Climate Impact Research·PIK)와 국제 공동연구 및 인재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PIK는 복잡계 연구, 기후영향평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기관 중 하나다.

켄텍은 2021년 PIK의 Jurgen Kurths(위르겐 쿠르츠) 교수를 해외초빙석좌교수로 임용해 협력 기반을 구축해 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공동 행사 개최, 학생 및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연구성과 자료 공유 등이다.

양 기관은 기후·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차세대 연구자들이 국제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3238호

광주 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 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장

1.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5. 12. 4.(목) ~ 2025. 12. 18.(목)
나.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광주광역시 북구 기후환경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도시계획팀,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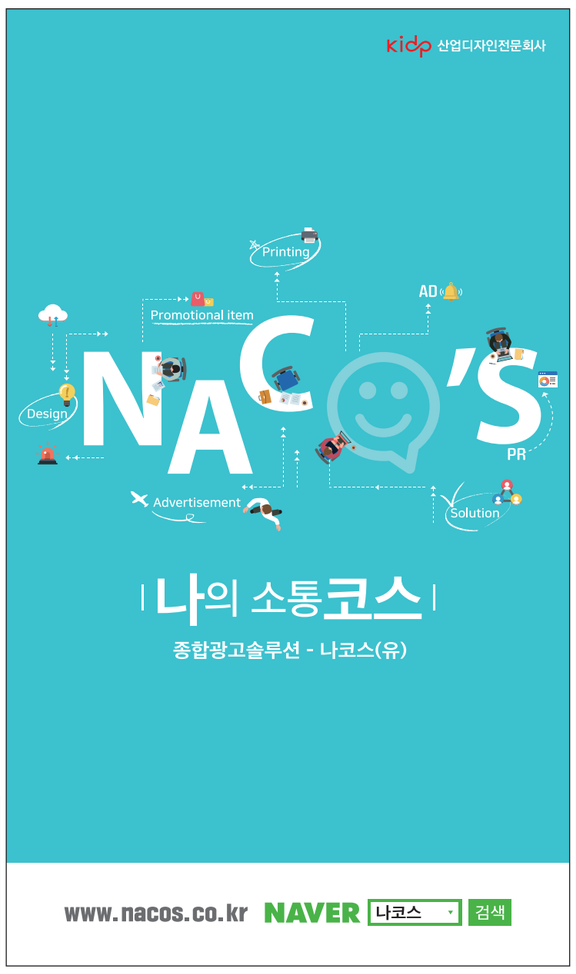
2. 공람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안)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문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문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gwangju.go.kr)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3.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4.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가. 개최일시 : 2025. 12. 16.(화) 14:00
나. 개최장소 : 광주이노비즈센터 204호 다목적 대강당(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062-613-389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도시계획팀(062-600-6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남일보가 만드는 사람·문화·관광중심 월간지
전라도人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 구독문의 062-370-7080 / 팩스 062-370-7005



광남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취재경력기자 및 관리직)

광주·전남지역의 종합일간지로 지역언론을 선도해온
광남일보가 미래를 함께 열어 갈 역량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대상]

모집부문	모집지역	인원
경력기자(취재)	본사	○명
지역기자	곡성	1명
광고사업독자팀(수습)	본사	1명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 접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사진부착, 연락처 명기) · 자기소개서 1부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접수기한 : 2025년 12월 5일 까지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4층(중흥동) 광남일보 총무국 ☎ 062-370-7093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 합격자 발표는 추후에 개별 통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광남일보